

“형식적인 상담 아닌, 실질적 조언” AI 면접 체험까지 프로그램 ‘눈길’

aT센터서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SOC 분야 등143개 공공기관 참가
설명회·모의면접 등 실전형 강화
QR코드, 부스 위치 등 효율적 관리

“주변에 공기업 현직자가 없어 조언을 구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박람회가 큰 도움이 됐다. 상담 중 궁금한 점들을 질문했을 때, 구체적인 답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 1, 2전시장 열린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는 대학생, 군인 등 청년 구직자들로 붐볐다.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초로 3일간 개최돼 구직자들의 참가 기회를 확대했으며, 143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채용 정보와 취업 비결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1전시장(1층)에 위치한 공공기관 부스는 고용·보건·복지, 문화·예술·체육, 연구·교육, 외교·법무, 산업진흥·정보화, 금융 분야로 구성됐으며, 분야별로 색깔로 구분돼 참가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2전시장(3층)에 위치한 공공기관 부스는 에너지, 농림·수산·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 구성됐고, 메인 무대에서는 기관별 공개 모의면접이 진행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강원랜드 부스에서 상담을 받은 A씨는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들을 수 있어 박람회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인데, 직접 박람회에 참가해 기관 설명과 채용 관련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게 돼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는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취



1전시장(1층) 메인무대에서 열린 채용설명회에서 청년 구직자가 질문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업준비생들에게 직무별 주요 업무와 채용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인재상, 인사제도, 복리후생 등 다양한 회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카지노, 호텔, 사무행정 등 직무별 신입 직원들이 직접 멘토링 상담을 진행하며 최신 채용 트렌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필기시험, 면접 전형 등 공공기관 취업 성공을 위한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했다. 또한, 테이블 게임 시연을 통해 강원랜드의 상징이자 ‘관광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카지노 딜러 직무를 생생하게 선보이며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기관별 채용설명회와 인성검사 체험 등 기존 인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고졸 채용 전용 상담부스, 리버스 공개 모의면접, 인공지능(AI) 면접 체험 등 구직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입장권 팔찌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박람회장 내 참여 기관 부스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채용 정보 안내책자에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참가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

켰다.

군복을 입고 박람회에 참가한 B씨는 전역 후 희망 직군에서 기간제 근무나 인턴으로 경력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소서나 면접 준비가 부족해 박람회 참가를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부스 내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하면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동선을 관리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2만 4000명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2만1000명으로 계획됐으며, 특히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6개월 인턴은 1만2000명, 채용형 인턴은 4000명으로 확대해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KIAT,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총괄 맡는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업무 시작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총괄 업무를 시작했다. KIAT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기술센터에서 지난 17일 환관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KIAT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로 지정됐다. 특별법은 기업이 원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부 차원에서 최초로 제정한 인재양성 법안이다.

KIAT 인재혁신센터는 앞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할 전문 인재 양성에 필요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정책 마련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등 특

별법을 기반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업무들을 전담 관리하게 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재 양성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내에 교육훈련기관 또는 부서를 지정해 지원하고, 산업계가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직접 양성, 공급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별 인재양성 아카데미를 지정해 지원한다.

또 청년과 여성 인재에 대한 현황조사를 새롭게 시작해 정책 마련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나오되지 않으려면 인재가 양성되고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속도도 함께 빨라져야 한다”며 “첨단산업 인재를 키워내는 데에 기업들도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인재혁신센터의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K-스마트팜, 중동 시장에서 입지 강화

농식품부, 수출 수주 확대 방안 모색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유망시장으로 부상한 중동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2025년 중동 수출·수주 현황 및 계획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스마트팜 수출기업, 유관기관 및 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스마트팜 수출·수주액은 2억 4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형 규모 수주계약(1억1800만 달러)이 있었던 2023년(2억9600만 달러)보다 18.8% 감소했지만, 수주 건수가 60% 이상 증가하고 수주 대상국이 다양화되며 K-스마트팜의 국제적 입지가 확대됐다고 농식품부는 긍정평가했다. 수주 건수와 대상국은 2023년 11건, 9개국에서 2024년 18건 12개국으로 늘었다.

아울러, 기자재 조달 및 스마트팜 운영 등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많은 수주계약 특성상 현재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건(1억6600만 달러)들이 최종 성사된다면 2025년 스마트팜 수출·수주 실적은 지난해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전



세종 농식품부 청사.

망했다.

간담회에서는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중동 수주계약 건들의 실제 성과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한국사우디아라비아산업통상협회 간 K-스마트팜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두 협회는 ▲우리 기업의 중동 수출 애로 해소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양국 산업 간 상호교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중견기업 R&D 예산 53% 증액, 534억 지원

산업부, 5개 사업 31개 신규과제 선정
월드클래스 플러스 예산 78% 증액
지역 대학·공공연 협력 연구개발 확대

올해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에 전년 350억원 대비 53% 증액된 총 534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지원하는 과제는 5개 사업 31개로 전년(9개) 대비 크게 증가해 중견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주요 사업별로, 유망 중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84억원으로 전년(160억원) 대비 78% 증가했다. 지원대상은 매출 700억원~1조원 규모로, 전년도 수출비중 50% 미만, R&D집약도 3년 평균 1% 이상이다.

또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

과 성과공유를 지원하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 예산은 작년 91억원에서 올해 156억원으로 71% 증액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2개사 이상 참여하고,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중견기업-지역대학컨소시엄 대상으로 학위·채용과 연계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중견기업-지역 혁신얼라이언스 지원 사업’ 예산은 작년 39억원에서 올해 57억원으로 46% 증가했다.

중견기업의 사업화역량과 공공연의 기술역량을 연계한 협력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 챌린지 사업’을 통해서도 20억원을 투입해 5개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또 성장이 정체인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 사업’은 17억원 예산으로 4개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이밖에 중견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 예산은 14억원 투입된다.

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은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산업간 융복합이 심화되는 상황 아래 여러 주체간의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이 동반성장,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사업의 신규과제 모집을 20일부터 진행하고, 21일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중견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조건, 평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中소 유해물질 시설개선비 70% 지원

환경부, 내달 28일까지 신청 접수

환경부는 내달 28일까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위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의 70%를 지원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약 57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장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면서 자기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기부담금의 최대 20%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내달 28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전화상담 창구를 운영해 사업 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